

## 시가(詩歌): 누가 미혹되지 않았나 보고 있네

글/ 징즈(淨植)

하늘이 붉은 악마 멸하려 하니  
불안해진 사람들 살아가기 어렵도다  
역병은 무정하지만 눈이 있어  
누가 미혹되지 않았는지 가늠하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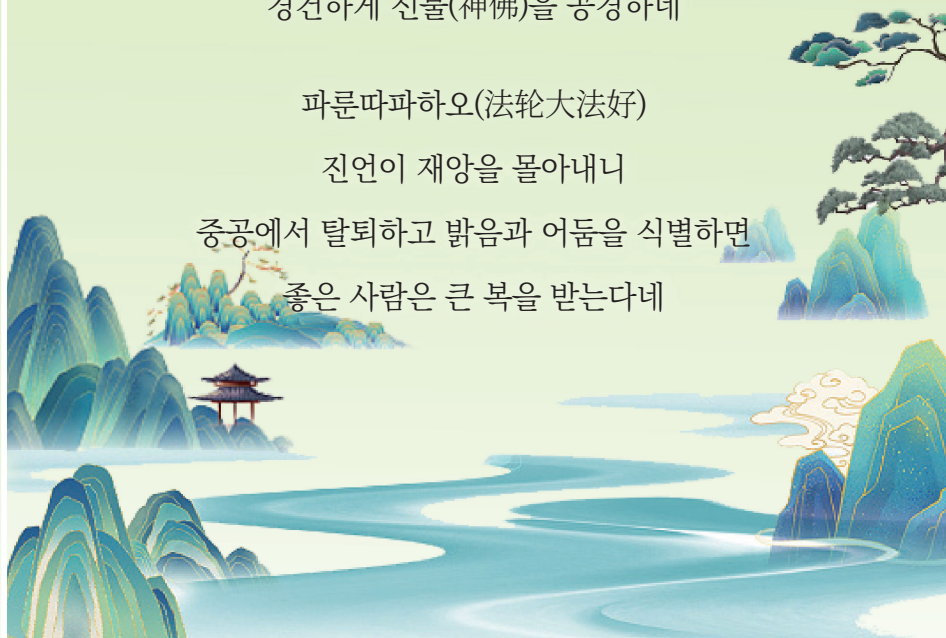
고개 들어 창궁을 바로 보고  
머리 숙여 자신의 잘못을 생각하니  
마음 바로잡아 선과 악에 밝아지고  
경건하게 신불(神佛)을 공경하네

파룬파파하오(法輪大法好)

진언이 재앙을 몰아내니

중공에서 탈퇴하고 밝음과 어둠을 식별하면

좋은 사람은 큰 복을 받는다네



# 하늘이 내린 큰 복

天賜洪福

중공 바이러스로 위독했던 독일 여성, '9자진언' 염하고 회복 | '하늘이 내린 큰 복' 이 가져다준 복

제 130 기



## 독자 여러분께 드리는 글

사랑하는 독자 여러분,

잡지 ‘하늘이 내린 큰 복(天賜洪福)’은 창간호부터 지금까지 여러분의 진심 어린 관심과 소중한 지지를 얻었습니다. 설 명절에 즈음하여 본 간행물 제작에 참여한 전체 동료는 독자 여러분께 진지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행복과 평안이 깃드시기 바랍니다!

2004년 8월 창간호 ‘하늘이 내린 큰 복’을 발간, 2017년 5월 ‘하늘이 내린 큰 복-구사일생 시리즈’를 발간하면서 지난해 12월까지 총 129호가 발간되었습니다. 수많은 독자의 편리를 위해 이번 호부터 총 발간번호를 복구해 이어서 사용합니다. (역주: 한글은 중문의 발간번호를 따릅니다)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변함없이 여러분께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려주고 인생의 경험을 나누며 난세 속에서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하늘이 내린 큰 복(天賜洪福)’ 편집부  
2022년 1월

## 목 차

## 서두일문

물과 불을 신을 공경하는 자의 집을 덮치지 않는다 .....3

## 절체절명

중공 바이러스로 생명 위협했던 독일 여성이 ‘9자진언’을 얻고 회복되다 .....5

뇌종양에 걸려 죽기를 기다리던 총참모부 엔지니어, 기이한 책으로 생명을 얻다 .....8

산증인의 회상: 1993년 베이징 동방건강박람회에서의 신적(神迹) ..... 10

[역사회고] 프랑스 주재 중국대사관은 왜 파룬궁 창시인을 초청했을까? ..... 12

‘마레(馬列) 할머니’가 파룬궁 수련인이 되다 ..... 14

중공 열성 지지자였던 젊은이가 인생이 바뀌다 ..... 16

## 사진보도

파룬따파 세계 홍전(弘傳) ..... 21

## 인과명감(因果明)

무신론을 받드는 중공 당수와 악당이 더 깊이 ‘미신’에 빠지다 ..... 22

## 혜안으로 진실을 깨닫다

뤄간은 왜 ‘분신자살’을 기획했을까?-한 여성 검찰관이 직접 겪은 사실 ..... 25

## 평안의 길

장사를 치를 뻔한 모친이 건강하게 10년을 더 살다 ..... 28

중국 경찰이 해외 탈당 핫라인에 전화해 목숨을 구하는 비결을 찾다 ..... 29

중공 특무의 탈당기 ..... 32

잡지 ‘하늘이 내린 큰 복’이 가져다준 복 ..... 34

의 뇌물을 줬는데 그는 한 푼도 받지 않았어요. 누구나 다 그가 좋은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뜻밖에 좋은 사람이 간헐어요. 지금 세상은 너무나 무서워요. 이 때문에 제가 감히 파룬궁을 접하지 못했어요.”

“공산당에 겁을 먹었군요.” 내가 이어서 말했다. “공산당은 강패 당으로서 서민의 생사를 관계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저는 이전에 기관지염으로 폐 질환이 생겼는데 결국 폐심병 합병증에 걸렸어요. 치료할 약이 없어 죽기를 기다리고 있을 때 파룬궁을 수련했고 파룬궁이 제 목숨을 구해줬어요. 제가 병이 없어졌는데 경찰은 오히려 불잡아 노동 교양소에 보냈어요. 저는 진정으로 중공의 사악한 본질을 똑똑히 알게 됐어요.”

“당신도 간헐었군요.” 그녀는 생각에 잠긴 듯하며 말했다.

“파룬궁 진상을 분명히 알고 중공에 속지 말라고 그 책을 선물한 것입니다.” 나는 또 그녀에게 물었다. “그 책을 보셨지요? 정말 좋지요?” “아주 좋았어요. 정말 좋았어요.” 그녀가 말했다.

그 후로 기회가 있어 이웃 마을에 가기만 하면 나는 그 작은 슈퍼마켓에 들러 일부 진상 자료를 봤는데 그럴 때마다 부부 두 사람은 즐겁게 받았다.

한번은 여주인이 말하기를 남편이 직장에 복귀해 출근하기에 언니를 데려다 장사를 돕게 했다고 말했다. 나는 슈퍼마켓이 많이 확대된 것을 발견했다. 상품이 빠짐없이

갖춰져 있고 손님도 끊이지 않아 자매 두 사람은 바빠서 눈코 뜰 새 없었다. 오래 머물기가 미안해 떠나려 할 때 여사장은 아쉬운 마음으로 길까지 나를 배려다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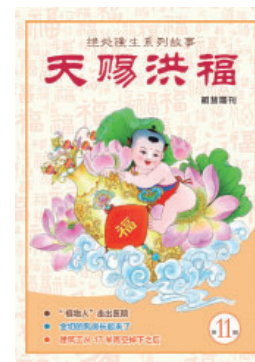
작년 봄, 이웃 마을에 일 보러 가는 길에 또 그 슈퍼마켓에 갔었다. 이제 그곳은 이미 그 작은 단층 건물이 아니라 2층 규모의 작은 건물인데 아래층은 슈퍼마켓이고 위층에 사람이 살고 있는데 넓고도 밝았다.

여사장은 나를 보자마자 두 손을 모아 합장하고 흥분하며 말했다. “아주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 작은 책을 선물받지 않았다면 오늘 같은 날이 없을 겁니다. 지금 저의 장사가 이렇게 잘 되는 것은 완전히 당신 덕분입니다!” 나는 다급히 해석했다. “제게 감사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대법 사부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저는 도와드릴 능력이 없어요. 단지 복음(福音)을 당신에게 전했을

뿐 나조차도 대법 사부님의 보호를 받아야 하므로 저도 대법의 혜택을 받고 있어요!” 여주인은 두 손으로 합장하면서 연속 큰 소리로 말했다. “대법 사부님 감사합니다! 대법 사부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늘이 내린 큰 복’, 이 작은 책자가 뜻밖에 여사장의 집에 이렇게 큰 복을 가져다줄 줄은 나도 생각지 못했다. 사랑하는 친구여, 만일 인연이 닿아 파룬궁 진상 자료를 받았다면 소중히 여기고 읽고 진상에 명백해지면 역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 ‘하늘이 내린 큰 복’이 가져다준 복

글/ 위쥘안(玉娟)

10년 전 나는 이웃 마을에 차를 타고 장 보러 가면서 ‘하늘이 내린 큰 복’이라는 진상 간행물을 조금 갖고 갔었다. 차에서 내리자 길목 왼쪽에 아주 작은 슈퍼마켓이 있었으며 앞으로 걸어갔다.

슈퍼마켓 여주인이 문 앞에서 청소하고 있었다. 나는 그녀와 인사를 나눴다. “안녕하세요, 아침부터 청소하시나요?” 그녀가 웃었다. 내가 ‘하늘이 내린 큰 복’ 한 권을 꺼내 “이 책을 선물할 테니 보세요. 이 책이 정말 좋아요.”라고 말했다. 그녀는 책을 받아 들고는 물었다. “이건 파룬궁이죠?” “파룬궁이 맞아요.”라고 내가 답했더니 그녀는 “싫어요.”라며 책을 내게 돌려줬다.

나는 책을 받고서 그녀에게 펼쳐 보이며 말했다. “여기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한 파룬궁 수련생이 신선한 물건을 파는데 이웃 남자 사장이 늘 그녀의 손님을 빼앗았으나 그와 마찬가지로 대하지 않았을뿐더러 늘 그를 도와줬어요. 결국, 이웃 남자 사장이 감동하고 그녀에게 매우 탄복했어요.

게다가 자신의 장사도 매우 흥성했어요. 당신도 장사하는 사람으로서 이걸 보면 당신에게 좋을 것이고 혜택도 볼 거예요.” “정말요? 그럼 한번 볼게요.”라고 하면서 여사장이 책을 받아 갔다.

얼마 후 또 이웃 마을에 장 보러 간 김에 여주인의 슈퍼마켓에 갔다. 그들 부부가 이 가게를 꾸리고 있었다. 여주인은 나와 반갑게 인사를 나눈 후 나와 이야기를 나눴다.

그녀는 내게 말했다. “저번에 제가 왜 책을 원하지 않았느냐면 감히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제 사촌 시형도 파룬궁을 수련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요. 제 이모님의 시어머니가 그러니까 사촌 시형의 어머니가 아들을 보러 갔었는데 아들의 얼굴을 보자마자 자기 뺨을 ‘퍽퍽’ 때리며 아들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들이 잘못이 없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 사촌 시형은 철도의 꽤 높은 관직에 있어 수련하기 전에는 누가 선물해도 받았어요. 파룬궁을 수련한 후 누군가 그에게 20위안



## 물과 불은 신을 공경하는 자의 집을 덮치지 않는다

글/ 바이촨(百川)

경건하게 신을 공경하는 자의 집은 홍수가 침범하지 않고 사나운 불길에 타지 않는다.  
이런 기이한 일은 예나 지금이나 모두 있다.

### (1)

당문종(唐文宗) 태화(太和) 5년(831년), 재주(梓州) 지역에 사는 예근(倪勤)은 군대를 부리는 책략으로 유명했으며 당시 부주(涪州) 흥교(興教)창고를 주관했다. 대형 창고였는데 내부에 대청이 있으며 대청 맞은 편이 바로 장강이었다. 창문으로 밖을 내다 보면 망망한 아홉 개의 장강지류가 일사천리로 흐르며 새가 너울너울 하늘을 날고 돛이 바람에 나부끼는 광경으로 마음이 편안하고 기분이 좋아진다! 예근은 이곳이 마음에 들어 불당(佛堂)을 차리고 자주 경전을 읽었으며 경건한 마음으로 부처에게 절

을 올렸다. 관료 사회에서 아침하고 암투를 벌이는 일에는 일절 도외시했다.

6월 9일 장강의 홍수가 범람하여 사납게 밀려왔다. 그러나 홍수가 대청 아래쪽 하천 부근에까지 왔을 때 일정한 거리를 두고 굽이를 돌아 흘러갔다. 이 전경을 본 예근은 공경하는 마음으로 신불(神佛)께 감사를 표하고 경서를 더욱 열심히 읽었다.

홍수가 지나간 후 살펴보니 주변 수십 리에 집채는 모두 큰물에 떠내려갔다. 오직 그의 이 창고와 대청이 무사히 온전하게 남아 있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은 신



불(神佛)의 가호가 확실하다고 생각했고 적잖은 사람들이 신을 존경하고 믿기 시작했다.

## (2)

‘변정론(辨正論)에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진(晉)나라 때 축장서(竺长舒)라는 사람이 오군(吳郡)에 살고 있었다. 평소에 ‘관음경(观音经)’을 열심히 읽으며 악을 멀리하고 선(善)을 행했다. 한 번은 성(城)에 화재가 발생해 집채와 가옥이 불이 닿는 대로 타버렸다. 축장서의 집은 바람 부는 방향에 있었고 위급한 순간에 더 전심으로 ‘관음경’을 읽었다. 큰 불길이 번져 그의 집에 닿으려 할 때 갑자기 풍향이 바뀌고 큰불이 바로 꺼졌다.

전 현(縣)의 사람들이 모두 이 기이한 일을 알고 잇따라 보러 왔다. 사람들은 모두 신불의 보호라고 했다.

당시 어떤 악당이 신불의 보호를 의심해 한밤중에 세찬 바람이 불 때 축장서의 집에 불을 던졌다. 몇 군데 던졌지만 타오르지 않았다. 이 악당은 매우 놀라며 감동했다. 날이 밝자 그는 축장서에게 찾아가 머리를 조아려 사죄하고 무슨 신통 법술이 있냐고 물었다.

축장서는 “저 자신은 어떤 신통도 없으며 다만 평소 불경을 읽고 양심에 따라 일을 처리할 뿐입니다. 번거로움과 위험에 봉착할 때마다 벗어날 수 있었습시다.”라고 말했다.

##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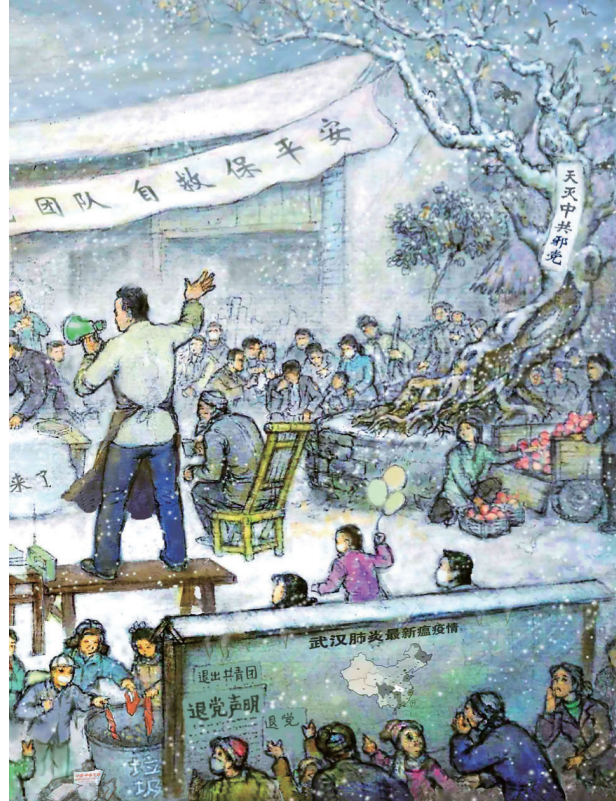
필자는 이런 사실을 들은 적

이 있다. 재작년 한 진(鎮)에 불이 나 이웃 집들이 모두 불에 타버렸는데 가운데 집 한 채만 멀쩡했다. 이 집 주인은 파룬궁 수련생이었다. 불길이가라왔을 후 사람들이 그녀의 방에 들어가 보니 리홍쯔(李洪志) 대사의 사진(像)이 벽에 걸려 있었다. 사람들은 그제야 리홍쯔 대사께서 그의 제자를 보호해 주신 것을 알았다.

당시 주민위원회 관계자가 “사진을 치워요.”라고 말하자 다른 한 여성이 “집에 자기 사부님 사진을 걸어 누구에게 불편을 줬나요? 영향을 끼쳤나요? 사부님 사진을 걸지 않았더라면 이 방도 불타 버렸을 텐데 누가 그 책임을 지지요?”라고 말했다. 그 주민위원회 관계자가 “그래요, 제가 아무것도 못봤고 아무 말도 한 적이 없다고 침시다.”라고 하자 옆에 있던 한 여성이 “그렇게 해야지요!”라고 말했다. 그 후부터 이 주민위원회의 관계자들은 파룬궁 수련생이 배포한 진상 자료에 대해 정말 ‘아무것도 보지 못한 척하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많은 신묘한 사적(事迹)들은 사람들에게 무신론은 터무니없는 것이고 유신론은 현실적인 것으로 마음으로 깨닫고 체득하면서 알아갈 수 있는 것임을 증명해 보인다.

그러하다. 하늘은 말없이 선량한 사람을 묵묵히 돕고 있으며 선악에 응보가 따른다는 이치는 예로부터 지금까지 이행되고 있다. 신령은 공정하며 상벌은 분명하다. 속히 사(邪)교적인 당을 버리고 부처와 신을 믿고 존경하자!



‘촌장이 앞장서 마을 사람들과 함께 삼퇴하여 생명을 구하다’: 작품은 민후이왕에서 발표한 ‘촌장이 앞장서 마을 사람들과 함께 삼퇴하여 생명을 구하다’에 근거한 작품이다. 진상에 명백해진 촌장이 전체 마을 사람들에게 외쳤다. “공산당, 공청단, 소선대에서 탈퇴해 스스로 생명을 구하고 평안을 지킵니다”, “깨끗하게 탈퇴하면 역신(瘟神)이 오지 못합니다.”

## 방화벽 넘어 민후이왕에 접속하세요

봉쇄돌파 소프트웨어 자유문 받기  
컴퓨터 PC버전: <https://j.mp/fgp88>  
안드로이드 VPN: <https://j.mp/fgv88>  
민후이왕 웹사이트: [www.minghui.org](http://www.minghui.org)



자유문 PC버전



안드로이드 버전

며 속임수를 써서 사기치는 것을 보았고 평민들의 비참하고 무력한 모습을 보았다. 가혹한 현실이 공산당에 대한 그의 마지막 한 가닥 희망을 깨뜨려, 반드시 탈당할 것을 다짐했다. 이와 대응해 그가 파룬궁이 큰 전염병 속에서 나타난 각종 신적(神迹)을 보고 파룬궁에 반신반의하던 생각을 버리게 됐다. 그는 내게 이런 이야기를 해줬다.

한 마을에서 많은 사람이 우한폐렴에 걸렸는데 전면 봉쇄로 마을의 사람들은 아예 밖으로 나갈 수 없었고 응급 처치할 의료진도 오지 않아 병에 걸린 사람들이 늘어나 병세가 날로 심각해졌다. 어떻게 할까? 촌장은 온 마을 사람을 모아놓고 함께 외쳤다.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찐싼런하오(真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 파룬따파하오! 찐싼런하오! 파룬따파하오! 찐싼런하오!” 이렇게 이미 병에 걸린 사람들이 아주 빠르게 건강을 회복했고 마을에서 아무도 더는 감염되지 않았다. 온 마을 사람이 평안하게 됐다.

그는 내게 “내가 탈당한 것을 위에서 알더라도 두렵지 않아요.”라고 말했다. 그는 또, 중공 내부에서도 특무기관을 비롯해 매우 많은 사람이 중공의 사악함을 알고, 모두 중공의 붕괴가 조만간에 일어날 일임을 안다고 했다. 그들 내부에서도 많은 사람이 중공 사악한 당의 파룬궁 비방 선전은 모두 헛소문을 퍼뜨려 죄를 뒤집어씌운 것이고 파룬궁이 좋다는 것을 안다고 했다.





# 중공 특무 탈당기

글/ 팡밍(方明)

나는 의사다. 파룬궁을 수련한지는 이미 20년이 되고 의술이 좋기에 명성을 듣고 병을 보러 찾아오는 사람이 매우 많다. 그중에는 중공의 고급 관리들도 적지 않다.

2019년 연말 때 거의 매일 저녁 한 중년 남성이 진료소에 찾아와 나와 이야기를 나눴다. 이 사람은 말을 잘하는데 우리는 비교적 대화가 잘 통했다. 비록 그가 말을 흘리지 않으려고 했지만 두세 번 이야기를 나눈 후 나는 그의 직업이 특무임을 알았다.

거의 일주일이지나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내가 그의 직업이 특무라고 말했다. 그는 깜짝 놀랐고 내가 이렇게 빨리 자신의 신분을 간파할 줄은 생각지도 못했다. 특무 직업을 가진 사람은 신분이 드러나는 것을 매우 꺼린다. 그는 즉시 황급히 작별 인사를 하고 갔는데 그 후 오랫동안 다시 오지 않았다.

두 달여 뒤 우한폐렴이 터져 빠르게 퍼지면서 우리 지역도 도시를 봉쇄하기 시작했다. 2020년 4월 초 전염병 상황이 어느 정도 완화됐을 때 뜻밖에도 그가 또 왔다.

그는 진료소에 들어서자마자 “그동안 제가 잠시 외지로 발령받아 사회 안정을 지키다 지금 돌아왔어요. 저와 아내가 당에서 탈퇴하게 도와주세요.”라고 말했다.

나는 매우 놀랐다. 그는 이어서 내게 자신



의 신분을 공개했고 또 그가 OO 특무기관에서 근무했다는 증명서와 특별 통행증을 보여줬다. 그는 자초지종을 이야기했다.

그는 높은 직급 때문에 이 몇 년간 밍후이왕(明慧网), 따지웬(大纪元) 등 웹 사이트를 보고 있다며 파룬궁(法輪功) 서적도 보았기에 파룬궁에 관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지만, 밍후이왕에서 보도한 파룬궁이 보여준 신기함과 비상함에 그래도 반신반의한다고 했다. 그는 중공의 검은 내막과 사악함에 대해 비교적 깊이 알고 있었고 지난 몇 년간 중공을 대신해 더러운 일을 적지 않게 했다. 이번에 외지로 사회 안정을 유지하러 갔다가 그는 크고 작은 각급 관리들이 부패 무능하고 민중의 생명을 들볶듯이 여기



# 중공 바이러스로 생명 위험했던 독일 여성이 ‘9자진언’ 염하고 회복되다

“(중공) 바이러스는 상상 이상으로 저를 허약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죽을 것 같아 정말 무서웠습니다.” 이것은 독일 뮌헨 공항의 여성 보안원 실케 바그너(Silke Wagner)가 2021년 11월 중순, 중공 바이러스 델타 변이에 감염됐을 때를 회상하면서 한 말이다.

“제가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하나고 물었더니 남편은 저에게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쩌싼런하오(真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를 염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대로 했습니다. 그러자 매일 조금씩 좋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주사도 맞지 않고 약도 먹지 않았는데 바그너는 모든 것이 정상으로 회복됐다.

그녀는 두 구절을 계속 외웠을 뿐인데 중공 바이러스에서 벗어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번 경험은 그녀의 인생관과 세계관을 바꿔놓았다.

## 일가족 셋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돼

실케 바그너는 바이에른주 란츠후트(Landshut) 인근에 살고 있다. 그녀와 남편 라이너 바그너는 모두 뮌헨 공항에서 보안원으로 근무한다. 그들에게는 아들 셋이 있



건강을 완전히 회복한 실케 바그너(Silke Wagner). 다. 라이너는 파룬궁을 수련한 지 10여 년이 된다. 작은아들 마르세유는 2년 전부터 파룬궁 책을 읽기 시작했고 가끔 아버지를 따라 연공했다.

2021년 11월 10일, 18세인 마르세유가 학교에서 코로나 검사를 받았는데 델타 변이 양성 판정을 받았고 바그너 부부도 양성 판정이 나왔다.



남편 라이너가 가장 먼저 증상이 나타났고 마르세유는 증상이 약했다. 부자는 집에서 5일 동안 누워있었는데 머리가 아프고 열이 나고 목도 아팠다. 3일째부터 남편 라이너는 일어나 연공하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정상으로 회복되었다. 그동안 실케는 줄곧 그들을 돌보고 있었다.

### 일주일 후 실케가 몸져눅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남편이 저를 병원에 데려갔는데 거기에는 사람이 아주 많았습니다. 보건 당국은 저에게 집으로 가서 격리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실케는 “열이 섭씨 41도까지 올랐는데, 침대에 누워 도저히 일어날 수 없었고 곧 죽을 것 같았어요.”라고 말했다.

당시 라이너는 이미 많이 회복되어 아내가 식사하고, 물을 마시거나 옷을 갈아입게 도왔다.

“저 이제 어쩌면 좋죠?” 절망 속에서 실케가 물었다. 라이너는 실케에게 9자진언(九字真言)인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 쩌싼런하오(真善忍好)’를 염해보라고 했다. 그녀는 따라서 했다.

“줄곧 끊임없이 염했어요. 그러자 매일 호전이 있었어요. 그 과정에서 머릿속의 잡념이 계속 없어지더군요.” 실케는 “원래 저는 생각이 많은 사람이라 대뇌가 끊임없이 돌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저는 이런 것들을 내려놓았고 이 두 구절만 집중해서 염할 수 있습니다. 생각도 많이 없어져 조용해졌고요.”라고 말

했다.

그 기간에 라이너는 침대 옆에 앉아서 아내 실케에게 파룬궁 주요 서적 ‘전법륜(轉法輪)’을 읽어줬다.

### 무신론을 버리고 파룬궁을 수련하다

실케는 ‘파룬따파하오, 쩌싼런하오’를 끊임없이 염했다. 한번은 병상에서 빛을 보았는데 파룬궁 창시인 리홍쯔(李洪志) 사부님의 모습이었다고 했다. 그녀는 “아주 잠깐이었어요. 연꽃 보좌에 앉아 계셨는데 아주 자비로우셨고 아주 밝은 빛이 리홍쯔 사부님을 에워싸고 돌고 있었습니다. 사부님께서 저를 보고 웃으셨는데 제가 신기해하자 곧 사라지셨습니다.”라고 말했다.

실케는 바로 계속해서 ‘파룬따파하오, 쩌



실케와 남편 라이너 바그너(Rainer Wagner).

바이러스가 가장 심할 때 전화로 많은 사람을 구했습니다. 돈 한 푼 쓰지 않는데, 삼퇴하고 ‘9자진언’을 읽는 방법으로 많은 사람이 재난에서 무사했어요.”

경찰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보아하니 하신 말씀이 다 사실이네요.”

리징은 계속 말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지요. 선생님이 탈당하지 않으시면 연공을 배우라고 권하기가 어렵습니다. 아직도 무신론과 연결돼 있기 때문입니다. 중공을 인정하면 그것의 일원이고, 그것을 위해 평생을 분투하겠다는 그 말을 취소하지 않으면 아무도 선생님을 구해줄 수 없거든요. 신불은 사람을 구함에 그 마음을 봅니다. 머리 석 자 위에 신령이 있다는 말은 들어 보셨지요?”

“솔직히 말할게요. 사실 코로나에 걸려 전화한 것입니다.” 경찰은 그제야 사실대로 말했다.

리징이 말했다. “제대로 찾으셨네요. 반드시 선택하셔야 해요. 병을 낫게 하려면 탈당부터 하세요. 전염병 신(瘟神)은 이마에 낮과 망치 낙인이 찍힌 사람만 찾고 있습니다. 밍후이왕 보도에 따르면 우한에서 바이러스가 퍼지는 기간, 중공의 모 사업장에서 집계한 2월 사망자 명단이 인터넷에 떠돌았다고 해요. 이 명단에 기록된 사망자 중 88%가 중공 당원이라고 합니다. ‘중국공산당원이 전염병발생률의 고위험군임’을 보여 주다’라는 문장을 찾아보세요. 제가 한 시간 넘게 설명해 드린 것도 선생님이 잘되기를 바라서입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탈퇴시켜주세요. 저는 성이 양 씨입니다.” 그가 말했다.

리징이 “축하드립니다! 선생님은 새 생명을 얻으신 거예요! 양텐유(楊天佑)라는 이름으로 탈당해서 평안을 보장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라고 말했다.

경찰은 “‘양텐유’로 탈당하여 평안을 보장했다는 것을 기억!”이라는 말을 몇 번이 고 했다.

그리고는 “이제 연공을 가르쳐 주세요.”라고 했다.

리징이 말했다. “연락처를 주시면 관련 링크와 모든 관련 정보를 보내드릴게요. 만약 무슨 문제가 있으면 서로 연락해요. 선생님도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 주세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경찰은 말했다.



### 삼퇴 성명 방법

(실명, 가명 모두 유효)

- 해외 전자 우편함으로 삼퇴 성명을 탈당 우편함에 보낸다:  
tuidang@epochtimes.com
- 봉쇄돌파 프로그램으로 탈당 사이트에 접속해 삼퇴성명을 한다:  
tuidang.epochtimes.com
- 전 세계 탈당 센터:  
전화: 001-416-361-9895  
팩스: 001-201-625-6301
- 먼저 성명서를 공공장소에 붙이고 나중에 인터넷에 접속해도 되며, 파룬궁 수련생에게 ‘삼퇴’를 부탁해도 된다.



해하고 있는 것이예요.” “그런 내용은 다 알아요.” 그가 말했다.

“지금 선생님께 급한 것은 무슨 조직에 가입하는 게 아니라 ‘삼퇴’하는 것입니다. 당원이세요?”

경찰은 아무 말도 없었다. 리징이 말했다. “당원이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공산당은 인재를 골라서 체면을 세우니, 선생님은 분명 입당하기 전에 아주 뛰어난 인재였을 겁니다. 하지만 중공의 면모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계속 따라가면 위험합니다.”

리징이 이어서 삼퇴해서 평안을 지킨다는 게 무슨 뜻인지 설명했고, 경찰은 계속 듣고 있었다.

그는 또 물었다. “마약을 끊을 수 있나요?”

“끊을 수 있어요. 코로나바이러스 무섭죠? 코로나에 걸린 사람도 진심으로 ‘9자진언’을 읽어 목숨을 건졌는데, 마약 끊는 것이 뭐가 대수겠어요?” 리징이 말했다. “지금 이 바이러스는 바이러스 전문가도 방법이 없어요. 오직 파룬궁 수련생만 끊임없이 세상 사람들에게 살아남는 비결을 알려주고 있는데, 믿는 사람은 모두 평안할 수 있습니다. 진짜 비결이 뭔지 아세요? 우선, 삼퇴를 해야 하고, 그다음에 진심으로 ‘9자진언’을 읽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은 꼭 탈당 성명을 하셔야 해요. 탈퇴해야 진정으로 사악한 마귀에게서 벗어날 수 있고, 그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사악한 당과 함께



어우러져 있는데 어떻게 독이 없을 수가 있겠어요?”

리징은 중공의 사악함과 파룬궁 수련생에 대한 생체 장기 적출, 또 우한 바이러스를 은폐해 전 세계가 피해당한 사실을 이야기했다. 경찰은 조용히 들으면서 가끔 “예”, “그래요?”, “그렇게 된 거군요!” 하고 반응했다.

경찰은 또 말했다. “파룬궁을 어떻게 연마하는 것인지 설명해주세요.”

리징이 “사실, 이 공법은 아주 간단하지만, 선생님이 연분이 있는지 봐야 하거든요.”라고 말하면서 병에 걸린 우한 의사 두 명이 건강을 회복한 이야기를 들려주며 인터넷에 접속해서 검색해보라고 했다.

그 경찰은 직급이 높은 사람이었는지, 바로 ‘밍후이왕’을 접속하더니 리징이 말한 문장을 찾아냈다.

리징은 또 동위홍(董玉红) 박사의 연구에 관해 말했다. ‘9자진언이 중공 바이러스 치료에 미치는 효과’를 찾아보세요. 다 근거가 있어요.” 경찰은 바로 찾아내더니 “이거 진짜네요.”라고 말했다.

“어떻게 해서 많은 사람이 돈 한 톨 쓰지 않고 아홉 글자만 외워서 기사회생할 수 있었을까요? 진심으로 ‘파룬따파하오, 쩐싼런하오’를 외우면 신불(神佛)이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특히 현재 천재 인화에서 평안을 유지하는 방법은 이것뿐입니다. 우리는 우한

싼런하오’를 얻었다. 그 후에 그녀는 남편에게 파룬궁을 수련하고 싶다고 했다.

남편 라이너가 파룬궁을 배우기 시작했을 때 실케도 함께 ‘전법륜’을 읽은 적이 있었다. 그러나, 제2강까지 읽고 멈췄었다. 당시에는 책에 나오는 일부 내용을 아직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한다.

실케는 공산당 통치하의 동독 드레스덴에서 태어났고, 줄곧 무신론자였다고 한다. 그러나 서독 바이에른에 친척이 많아, 가족들이 동독 당국에 친척방문 출국을 신청했다. 그런데 아주 오랫동안 결과가 없더니, 1984년 실케가 11살 되던 해에 친척방문이 허가돼, 그때 공산 동독에서 서독 바이에른으로 온 것이다.

환경이 변했지만 실케는 이전에 세뇌받은 공산주의 영향으로 줄곧 무신론자였다. 그러나 남편의 선량한 면모 덕분에 대법 수련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

죽음의 문턱을 넘을 뻔했던 실케는 지금은 파룬궁을 수련하려고 한다. “특히 사부님을 보았을 때 아주 감동했고 깊이 탄복했습니다.”

실케는 혼자 앉을 수 있을 때부터 남편, 작은아들 마르세유와 함께 셋이서 ‘전법륜’을 읽기 시작했다.


“가능하면 우리는 매일 ‘전법륜’을 읽습니다. 이제 저는 점차 기침하지 않고 열도 내



실케와 작은아들이 함께 사부님께 드리는 카드를 만들었다.

렸어요. 하지만 아직 허약한 감이 있었어요.” 이랬던 실케는 남편, 작은아들과 함께 파룬궁 공법을 두 차례 연마한 후로는 완전히 회복된 느낌이어서, 그 후로는 공함에 다시 출근한다고 했다.

### ‘전법륜’을 읽으니 마음이 평온해지다

“파룬따파하오, 쩐싼런하오’를 성심껏 염해서 이렇게 빨리 나올 줄 정말 몰랐어요.” 실케는 “대법의 힘을 느꼈어요. ‘전법륜’을 즐겨 읽으니 마음이 평온해져요.”라며 “제 경험은 책에서 말한 모든 것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 뇌종양에 걸려 죽기를 기다리던 총참모부 엔지니어, 기이한 책으로 생명을 얻다

글/ 텐이(天儀)

1994년 8월, 조용히 수술대에 누운 왕린(王林)은 억누르는 수술실 분위기로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베이징 301병원에서 이마엽성형 세포교질종(雙額葉星型細胞胶质質) 2급 악성종양 진단을 받은 며칠 뒤 왕린은 걸을 수 없었다.

왕린은 중공 총참모부 한 연구소 시험장의 엔지니어이다. 대학 졸업 후 지금까지 18년간 과학연구실험의 제일선에서 열악한 작업 환경으로 몸이 망가졌다.

수술실에 들어가기 며칠 전 왕린은 연휴에 아내와 아이를 데리고 베이징의 유명한 관광지에서 재미있게 놀아볼 계획을 세웠으나 지금은 힘없이 수술대에 누워 운명의 신의 최종 판결을 기다렸다.

7시간여의 뇌종양 제거 수술이 끝나서 며칠 후 왕린은 집도의의 무거운 표정을 보고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아니나 다를까 수술 후 재검사에서 종양

이 또 자라났다. 수술 후 54일 만에 종양이 4cm×3cm까지 자랐고 84일이 지나서는 6cm×5cm로 자랐다.

속수무책인 병원은 왕린을 퇴원시켰고 실은 집에서 죽기를 기다리라는 것과 같았다. 왕린은 세상의 무상함을 느꼈고 백년 인생이 짧고 고생스러움을 실감했다.

란팅(兰亭, 아내)은 사실로 받아들이기 힘들어했고 오진일 것을 바라며 뇌 외과 주임을 찾아갔다.

주임은 환갑이 넘은 노교수로 의학계에서 지명도가 높은 뇌 외과 전문의다.

노교수는 사진을 자세히 보고 나서 란팅에게 “남편의 종양이 교차 신경 부위에 자라서 수술로 깨끗이 제거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란팅은 남편이 얼마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지 다급하게 물었다. 노교수는 잠시 생

## 중국 경찰이 해외 탈당 핫라인에 전화해 목숨을 구하는 비결을 찾다

글/ 장원(章韻)

작년 12월의 어느 날, 캐나다 토론토의 탈당 핫라인 벨 소리가 또 울렸다. 자원봉사자 리징(李靜)이 전화를 연결했다.

전화기 저쪽에서 한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는데 그는 자신이 중국의 경찰이라고 하면서 “당신들에게 비법이 있지 않나요?”하고 물었다.

리징이 바로 그의 뜻을 알아차리고 “9자진언(九字真言) 말씀이시군요? 파룬파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파파는 좋습니다), 쩐싼런하오(真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입니다.”라고 말했다.

“네. 그거요. 정말 효과 있어요?” 그가 물었다.

리징은 국내외에서 ‘9자진언’을 믿고 자신을 구한 사례를 들려주었다.

듣고 있던 경찰이 중간에 말을 끊더니 “너무 많이 말씀하실 필요 없어요. 저는 마약에 중독됐는데 끊을 방법이 없어요. 당신들과 함께 연공을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마약을 끊을 수 있을까요?”라고 했다.

리징이 말했다. “제가 인터넷 봉쇄돌파 소프트웨어를 드릴게요. 거기서 동타이왕(動態網)에 접속해도 연공하는 사람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경찰은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건 저도 알고 있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마약을 끊을 수 있을까요?”라고 했다.

리징은 그에게 파룬궁 수련을 시작하고 나서 담배를 끊었고, 마약도 끊고, 암이나 난치병도 신기하게 다 나은 일부 사람의 진짜 실화를 들려줬다.

경찰은 다 듣고서 “저도 당신들 조직에 가입할 수 있어요? 제게 연공을 가르쳐 주시겠어요?”라고 물었다.

리징이 말했다. “무슨 조직에 가입하는 것은 없어요. 파룬궁은 어떤 조직이 아니고 누구나 배울 수 있거든요. 지금 세계적으로 100여 개 나라와 지역에 배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직 중공만 파룬궁을 금지하고 박





# 장사를 치를 뻔한 모친이 건강하게 10년을 더 살다

글/ 웨메이(岳梅)



2007년 76세의 어머니가 뇌 혈전에 걸리셨다. 매우 초조해진 가족들은 어머니를 모시고 현지에서 가장 좋은 병원으로 갔다. 어머니는 두 다리가 뇌 혈전으로 움직일 수 없어 걷지 못했다. 의사의 검진 결과 반드시 다리를 절단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장사를 치를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나는 언니와 상의했다. “어머니가 연세가 많으신데 다리를 절단하면 이후의 고통을 받아 당할 수 있을까요?” 어머니의 생각을 물었더니 절단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렇게 병원에 며칠 입원해 있다가 우리는 어머니를 집으로 모셔 왔고 내가 모시며 보살피도록 했다.

나는 파룬궁 수련자로서 어머니를 세심히 보살피며 번거로움을 마다하지 않았다. 그이에게 진심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쩌싼런하오(真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라는 이 9자진언을 염(念)하면 반드시 도움이 될 거라고 알려드렸다. 어머니께서는 머리를 끄덕이면서 잘 기억할 수 있게 몇 번 더 읽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어머니께서는 정말 열심히 9자진언을 염하기 시작했는데 매일 시간이 있

으면 계속 염했다. 나중에는 9자진언을 염하기 전에 우선 “사부님 안녕하세요.”라며 파룬따파 사부님께 안부 인사를 전했다. 파룬따파를 존경하는 어머니의 그 경건하고 순정한 마음에 나는 매우 감동했다.

한 주일쯤 되자 어머니가 일어설 수 있었다! 또 며칠 지나서 그이는 지팡이를 짚고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다! 얼마 지나서 그이는 지팡이 없이 천천히 걸을 수 있었다! 어머니의 신기한 변화를 보고 흥분된 나는 전화를 걸어 언니에게 알려줬다. 언니는 듣고서 믿기지 않아 반복해서 물었다. “정말? 진짜인 거야?” 나는 사실의 과정을 언니에게 들려줬다.

다음 날 언니 내외가 왔다. 문에 들어서자마자 어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거실에서 천천히 오가는 모습을 본 언니는 와락 어머니를 껴안고 큰 소리로 말했다. “파룬따파에 감사드립니다! 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이렇게 어머니가 건강히 10년을 더 사셨습니다. 2017년 86세인 어머니는 편안히 돌아가셨습니다. 만일 9자진언이 아니었다면 어머니는 10년 전에 우리 곁을 떠나셨을 거라고 생각한다. 파룬따파는 정말 좋다! 9자진언은 진짜로 평안을 준다!



각에 잠겼다가 매우 신중히 “현재로선 최대 3개월까지 살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란팅은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왔다.

란팅은 남편의 병간호로 정신적 스트레스와 경제적 부담, 피곤으로 몸이 망가졌다. 골반염, 부속기염, 자궁경부 미란, 장염, 위염, 유선 증식 등 병고에 시달렸다.

301병원은 그녀에게 입원 치료받으라 했으나 “내가 무너져서는 안 돼. 내가 병상에 누우면 이 집은 정말 끝장이다.”라는 생각이 들어 이를 악물고 버티면서 위중한 남편을 정성껏 보살폈다.

1995년 봄 운명의 신이 마침내 이 휘청거리는 가정을 찾아왔다.

이때 란팅은 인연이 닿아 파룬따파(法輪大法) 수련을 시작했는데 매일 파룬궁(法輪功)의 서적을 보고 연공을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란팅의 정신 상태가 좋아졌고 몸에 기운이 생겼으며 길을 걸을 때 온몸이 가벼웠다. 두 달 후 위염, 장염이 다 나았고 연공 3개월 후 건강이 회복돼 질병이 전부 사라졌다.

아내가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것을 보고 왕린도 파룬궁 서적 ‘전법륜(轉法輪)’을 보기 시작했다. 책을 다 보고 나서 왕린은 파룬궁 진선인(真·善·忍) 법리에 탄복했고 사람으로 사는 이치와 사람이 왜 사는지, 병을 얻게 되는 원인을 깨달았다.

왕린은 얼마 남지 않은 여생이라도 파룬궁을 수련하기로 했다.

연공한 지 사흘째 되던 날 왕린에게 수술 전후의 모든 증상이 나타났다. 복통, 다리 통증, 두통으로 머리가 터질 듯했고 메스껍고 토하고 싶었으며 온몸에 기운이 하나도 없었다.

하지만 그는 꾸준히 연공하고 ‘전법륜’을 공부했다. 이를 동안 머리가 아프더니 우측 병소부위에 아주 큰 구멍이 하나 생겼다.

전에 수술할 때 머리의 우측 태양혈 부위에서 뼈를 잘라냈는데 의학적으로 압력 완화창구라 한다. 왕린은 이 부위가 몹시 아파서 입을 벌릴 수 없었고 식사조차 힘들었으나 일주일간 아프고 관촬아졌다.

어느 날 밤 왕린은 꿈에서 소스라쳐 깨어났다. 강한 뜨거운 흐름이 전신을 관통해 땀으로 흠뻑 젖었는데, 마치 삼복더위와 같은 열기로 신체가 정화된 느낌을 받았다. 왕린은 자신이 진짜 구원받았음을 알았다.

파룬궁을 수련한 지 반년 만에 왕린의 건강은 정상으로 회복됐다.

**어느 날 밤, 왕린은 꿈에서 놀라 깨어났는데, 온몸에 강한 열류가 흐르는 것을 느꼈고, 몸이 땀에 흠뻑 젖어 마치 삼복더위와 같은 더위로 온몸이 정화된 느낌을 받았다. 왕린은 자신이 진짜 구원받았음을 알았다.**

1995년 12월 연구소에서 왕린에게 새집을 분양했다. 집을 꾸밀 때 왕린은 50kg 되는 시멘트 자루를 1층에서 5층까지 지고 올라갔고, 연속 20여 일을 일했지만 조금도 피곤을 느끼지 않고 늘 기운이 넘쳤다.





## 산증인의 회상: 1993년 베이징 동방건강박람회에서 신적(神迹)

글/ 주핑(朱萍)

편집자의 말: 이 글은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파룬궁 수련생이 파룬궁 창시인 리홍쯔 선생께서 1993년 베이징 동방건강박람회에서 병을 치료해 사람을 구한 신적을 직접 체험하고 회상한 것이다. ‘파룬따파(法輪大法)’는 1992년 5월 리홍쯔 선생께서 전하신 진선인(真·善·忍)을 근본 지도로 하는 불가(佛家)의 수련 대법으로, 지금까지 세계 100여 개 나라와 지역에 널리 전해졌다.



‘세계 파룬따파의 날’을 경축하는 뉴욕 대형 퍼레이드에 참가한 주핑. (2019년 5월 16일)

저는 주핑(朱平)이라고 하며 북경 출신입니다. 1951년생으로 미국 뉴욕에 살고 있습니다. 1993년 봄에 파룬궁을 수련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28년이 되었습니다.

1993년 12월 베이징 국제전시회장에서 열린 ‘동방 건강박람회’에 행운으로 참가했습니다. 박람회에서 저는 리홍쯔 대사와 그의 제자가 병을 고쳐 사람을 구하는 신적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 농아 소녀가 입을 열다

박람회 기간 파룬궁 전시장에는 사람이 특히 많았습니다. 매일 세 줄로 서서 첫 줄은 오전 번호를 받으려고 기다렸고, 두 번

째 줄은 오후 번호를 받으려고 기다렸으며 줄이 길어져 몇 번 꺾이었고, 세 번째 줄은 사부님께서 서명해 주시기를 기다렸습니다.

하루는 한 젊은 여성이 네 살 정도의 어린 소녀를 데리고 “리(李) 대사님 어디 계십니까?”라고 연속 물었습니다. 사부님을 만난 그녀는 사부님께 “리 대사님, 우리 딸이 농아여서 듣지 못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소녀의 자세한 상황을 사부님께 말했습니다. 사부님께서는 소녀를 사부님 앞에 세워놓고 손으로 몸 뒤에서 위아래로 움직이고 정수리에도 몇 번 저으셨습니다. 이때 사부님께서 소녀에게 “가거라, 저리 가거라.”라고 상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전시장

아무도 어찌 된 건지 몰랐고 소문은 저절로 없어졌다. 오히려 많은 경찰은 파룬궁이 심성을 지키며 ‘진선인’을 수련하도록 가르치며 살생과 자살을 금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2001년 중공이 이른바 ‘텐안먼 분신자살’ 거짓말을 날조했을 때 나는 문득 밤중에 경찰이 우리 집 문을 두드렸던 ‘상산 분신자살’ 거짓말이 떠올랐다. 나는 장쩌민과 뤼간 일당이 온갖 궁리를 다 하면서 파룬궁에 대한 요언을 날조하려 했고, 1년 넘게 진짜 파룬궁 수련생을 찾을 수 없자 출연자 몇 명을 구했다고 생각했다. 국가권력을 장악한 자가 모든

국가기구를 동원해 만주먹에 단지 마음을 닦고 선을 향하는 연공인을 모독하고 탄압하려는 이것도 당대의 이상한 일이라 할 수 있다.

1999년에서 2001년, 상산에서 텐안먼까지 장쩌민과 뤼간 일당은 왜 그렇게 ‘분신자살’을 계획했을까? 사실 ‘문화대혁명’, ‘6.4’ 등 정치적 박해를 거친 사람, 공산당의 본질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지적으로 생각해보면 다 알 것이다. ‘함정을 만들고→거짓말로 죄를 뒤집어씌워→비판해 남 앞에 나서지 못하게 하는’ 이 체계적 방법이 너무 그들 구미에 맞기에 그들이 사용하지 못하게 하기도 어렵다. 福

## 중공이 연출한 사기극 ‘텐안먼 분신자살’

2001년 1월 23일, 중공은 텐안먼 광장에서 ‘분신자살’ 사기극을 만들어 파룬궁에 죄를 덮어씌웠다. CCTV에서 방영한 영상 여러 곳에 뚜렷한 허점이 나타났다. 국제교육 발전조직(IED)은 2001년 8월 14일 연합국 회의에서 ‘텐안먼 분신자살 사건’은 ‘중공 당국의 국가 공포 주의 행태’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 이른바 ‘텐안먼 분신자살’은 파룬궁에 대한 모독인바 놀라운 음모와 모살에 관련된다. 녹화 분석에서 전반 사건은 ‘정부가 꾸며낸 것’으로 표명됐다. 그 자리에 있던 중국 대표팀은 확실한 증거 앞에서 말문이 막혔다. 이 성명은 이미 연합국에 기록됐다.



CCTV 화면: 의학상식에 따르면 세균 감염을 막기 위해 큰 화상을 입은 환자는 격리병실에 입원하고 면회자는 격리 모자, 장갑, 신발 커버를 착용해야 한다. CCTV 기자가 직접 사복을 입고 가까워서 류스잉(刘思影)을 인터뷰한 것은 분명 연기였다.



CCTV 화면: 큰불에 탄 왕진동(王进东)은 얼굴이 타버리고 솜옷이 타버렸으나 그의 두 다리 사이에 휘발유를 담은 플라스틱 스프라이트 병은 새것처럼 새파랗고 불에 가장 잘 타는 머리카락도 아직 온전했다. 왕진동 옆에 있던 경찰은 소화 담요를 손에 들고 자세를 취하는 등 당장 화재를 진압하려는 절박함이 없다.



마련한 공중화장실이 예전에는 매우 더러웠지만 여러 해 전부터 파룬궁 수련생들이 자원봉사로 청소했다. 큰 눈이 내리면 유치원 앞 도로를 청소하는 자원봉사자들도 파룬궁 수련생이었다. 1998년 대홍수 때 여러 단체가 기부했는데 파룬궁 수련생들이 가장 많이 냈다. 당시 해고노동자가 매우 많아 선달 그믐날 옷을 기부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헌 옷을 기부했지만, 파룬궁 수련생들은 정성을 모아 설날에 입으려 했던 새로 산 옷을 기부했다. 그래서 직장부터 동네까지 모두 파룬궁 수련생에 대한 인상이 매우 좋았다.

파룬궁 수련생들 자신도 삶의 평화와 기쁨을 느꼈다. 지난 몇 년 동안 모두가 연공장에 오면 즐거웠기에 계속 친척과 친구들을 데려와 연공하게 했다.

1999년 4월 25일 이후 중공이 파룬궁을 탄압하기 시작할 거라는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러나 관영 언론은 그 소문을 공개적으로 반박하며 정부가 민중의 연공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다. 많은 지역 주민도 파룬궁이 사회에 가장 유익하다고 여겼기에 아무도 중공이 마음을 닫고 선을 향하며 병을 제거하고 몸을 건강히 하려는 좋은 사람들을 탄압하리라 생각지도 못했다.

그래서 그날 밤 잠에서 깨어 그런 터무니 없는 질문을 받았을 때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몰랐다. 동시에 우리 부모님은 경찰관이 일부러 우리에게 나쁜 마음을 품고 사람을 해치려 한다고 생각했다. 사오츠는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고 어색하게 “오해하지 마세요. 그 질문을 하라고 지시한

사람은 왕 서기입니다. 지금 사무실에서 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사가 즉시 보고하라고 해 당신에게 묻지 않으면 그는 감히 잠을 잘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분신자살하러 간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라는 말을 듣고서 사오츠는 갔으나 우리는 아무도 다시 잠들 수 없었다. 중공 체제하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그 정권이 증거를 조작해 사람을 마음대로 비방할 수 있으므로 아무도 안전하지 않음을 알고 있었다. 나는 알 수 없는 위험이 다가오고 있음을 무의식적으로 느꼈고 그날 밤의 공포는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다음날 아버지는 파출소에 따지러 갔다. 분명히 다른 사람이 나쁜 짓을 한 것으로 생각했었다. 집에 돌아오신 아버지는 과장이 사과하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들도 알 수 없다고 했다면서, 상급자들은 파룬궁 수련생들이 5월 1일 상산공원에서 단체 ‘분신자살’할 계획이라며 공안국 국장까지도 한 밤중에 잠을 못 자고 몇 집을 찾아가 같은 질문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하셨다.

며칠 뒤 장쩌민(당시 중공 당 주석)과 톈간(중앙정치법률위원회 서기)이 상산공원에서 파룬궁 수련생들이 분신자살하러 한다는 거짓말을 날조했다는 메일을 접했다. 그들은 사람들이 믿게 하려고 전 지방청에서 서류를 발급했고, 무장경찰을 보내 상산공원을 지키기도 했다. 이른바 ‘분신자살’ 날짜가 세 번이나 바뀌었지만, 파룬궁 수련생은 한 명도 가지 않았다. 현지 경찰은 한밤중에 파룬궁 수련생 집 문을 두드리며 조사했으나



1993년 12월 11일부터 12월 20일까지 리홍쯔 선생은 다시 제자를 이끌고 박람회 조직위원회 자격으로 북경 국제전시회장에서 열린 93년 동방건강박람회에 참가했다. 리홍쯔 선생은 12월 15일, 12월 17일과 20일에 세 차례 보고를 했다. 박람회가 끝나면서 박람회 최고상 ‘변연 과학 진보상’과 대회 ‘특별 금상’ 및 ‘군중이 환영하는 기공사’라는 칭호를 받았다.

이 넓어, 소녀는 사부님으로부터 먼 곳으로 달려가 거기 서서 웃고 있었는데, 사부님께서 “이리 와! 이리 오너라.”라며 손을 저으셨습니다. 소녀가 다시 뛰어왔습니다. 그때 저는 소녀 엄마가 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소녀가 달려오자 사부님께서 소녀 엄마에게 “됐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딸을 안고 쿵 하고 사부님께 무릎 꿇고 통곡했습니다. 사부님께서 급히 “일어나세요, 그러지 마세요.”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저와 구경하던 많은 사람도 모두 울었습니다.

나중에 사부님께서 다시 한 차례 소녀의 몸을 청리(清理)해주시자 말을 할 줄 알게 됐고 젊은 엄마는 감격으로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저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관중이 직접 사부님께서 사람을 구하는 신적을 목격했습니다. 단 몇 분 만에 청각장애 소녀가 들을 수 있고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 마비된 노인이 두 다리로 걷다

어느 날 오후 네 사람이 들것 하나를 들고 파룬궁 전시장에 왔는데 그 뒤로 여러 명이 따라왔습니다. 저는 들것 위에 할머니 한 분이 누워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부님을 찾은 노인이 병을 봐달라고 하자 사부님께서 상황을 물었습니다. 그녀의 자녀들은 어머니가 마비된 지 오래됐다고 말했습니다. 사부님께서 “알았어요.”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사부님께서 노인에게 “어때요? 내 말이 들리나요?”라고 하시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부님께서 또 “협조할 수 있겠나요?”라고 물으셨습니다. 할머니는 “할 수 있어요.”라고 말했습니다. 사부님께서 허리를 굽혀 손으로 이리저리 움직여 노인의 몸을 조절하며 청리해 주셨습니다. 잇따라 사부님께서 노인에게 “일어나 앉으세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습니다. 노인은 자기 귀를 못 믿겠다는 듯이 하지만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놀라 멍해졌습니다.

노인이 일어나 앉자 사부님께서는 다시 그녀의 몸을 조절해주시면서 손으로 그녀의 등 뒤를 이리저리 저으신 다음 정수리에 서 저으셨습니다. 잠시 후 사부님께서는 그녀에게 “일어나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인은 머뭇거리다가 천천히 일어섰고, 사부님은 “다리를 내디디세요! 앞으로! 앞으로 걸으세요!”라고 말씀하시면서 뒤로 물러섰고 노인은 사부님의 맞은편에서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사부님께서는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오세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부님께서 뒤로 물러서면 그녀는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으로 나아가더니 눈물이 대번에 쏟아졌습니다.

노인이 격동하자 사부님께서 “자, 이리 오세요, 앞으로! 앞으로 걸어가세요!”라고 하시며 그녀에게 한 바퀴 돌라고 하셨습니다.

## [역사회고]


### 프랑스 주재 중국대사관은 왜 파룬궁 창시인을 초청했을까?

1995년 3월 12일, 프랑스 주재 중국대사관은 특별히 파룬궁 창시인 리홍쯔(李洪志) 선생을 초청해 파리 16구 반루(Van Loo)로 19번지에 소재한 중국대사관 문화처 강당에서 파룬궁 해외 첫 전수반 강의를 시작으로 파룬궁은 서방으로 전파되었다.

당시 프랑스 주재 중국 대사였던 차이팡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열렬한 박수갈채를 보냈고, 어떤 사람은 감동돼 울었습니다. 저는 제 뒤에 있는 사람이 “신비해요! 정말 신기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노인은 그 주위를 한 바퀴 돌았는데 이때 그녀의 아들딸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모두 사부님 앞에 달려가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리 대사님 감사합니다! 리 대사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오랫동안 마비됐던 우리 엄마 이젠 잘됐네요. 리 대사님 고맙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부님께서 그들을 하나하나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이는 1993년 ‘동방건강박람회’에서 나타난 많은 신적 중 두 가지일 뿐입니다. 사실 파룬궁의 신적은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동방건강박람회에서 리홍쯔 사부님께서는 박람회 최고상인 ‘변연 과학 진보상’과 대회 ‘특별 금상’ 및 ‘군중이 환영하는 기공사’라는 칭호를 받으셨습니다. 

바이(蔡方柏)와 그 아내를 포함, 대사관의 거의 모든 부서 직원들이 리 선생의 강의에 참석했다. 일부 파리 시민들도 이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 했다. 이어 그다음 주에는 대사관 문화처 후원으로 파리 12구 도메닐(Daumesnil) 거리의 무술센터에서 프랑스 제1회 파룬궁 학습반이 열렸다.

## 상산에서 텐안면까지: 뤼간은 왜 ‘분신자살’을 기획했을까? -한 여성 검찰관이 직접 겪은 사실

글/ 메이신(美馨)

한밤중에 자고 있는데 누군가 문을 두드리며 나를 깨웠다. 너무 폭력적이어서 건물 전체가 흔들리는 느낌이 들었다. ‘지진인가?’ 하고 궁금했다. 아버지는 저녁에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수면제를 드셨지만, 그날 밤 시끄러운 소리에 놀라 깨어났다. 아버지는 셔츠를 여며 잡고 아래층으로 서둘러 내려갔다. 어머니가 따라갔다.

노동절 연휴 전날인 1999년 4월 30일이었다. 아버지가 허둥지둥 문을 열었고 그 사람은 현지 경찰 샤오츠(小迟)였다. 그는 우리 가족과 아는 사이였지만 경찰 신분증을 보여주며 업무상 문제임을 알렸다. 그는 문에 들어서자마자 나를 만나려 했다. 당시 나는 아직 젊은 여성이었다. 한밤중에 남자 경찰관이 나를 찾아왔을 때 부모님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했다. 내가 침실에서 나왔을 때 샤오츠가 “내일 분신자살하러 상산(香山) 공원에 갈 건가요?”라고 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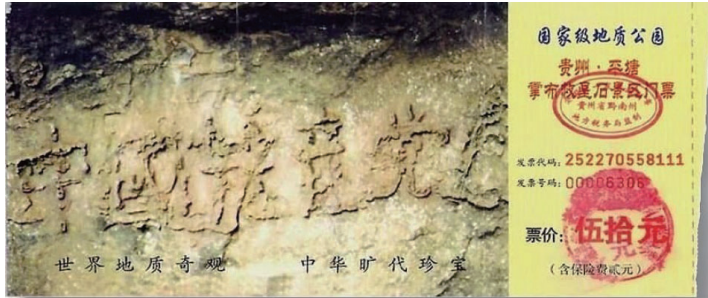
“무슨 소리예요?”라며 나는 그 말을 듣고 완전히 충격받았다. 나는 그런 일을 들어본 적도 없고 짐작조차 하지 못했다. 당시 나는 모두가 동경하는 부유하고 품위 있는 집안의 검찰관이였다. 어떻게 그런 기이한 일이 한밤중에 벼락처럼 내게 죄를 뒤집어씌울 수 있던 말인가?

나는 1996년에 파룬궁 수련을 시작했고 지역 보도원이 됐다. 파룬궁의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히 함과 도덕성 향상이 입소문을 타 많은 이가 합류했다. 우리는 연공장을 열었고 또한 주변 지역에 파룬궁을 소개했다. 1999년 불과 3년 만에 이 지역 모든 마을에 파룬궁 연공장이 생겼다.

수련 후 여러분의 건강 상태는 보편적으로 좋아졌다. 예를 들어 류(刘) 씨는 10년 넘게 요통이 심했다. 파룬궁을 며칠 수련한 후 그녀는 요통에서 회복했다! 그녀는 학교에 다닌 적이 없어서 문맹이었지만 수련을 시작한 지 1년 만에 혼자서 ‘전법륜(转法轮)’을 읽을 수 있었다! 쑨(孙) 씨 여성은 몇 년 동안 마비되어 누워있었다. 그녀는 전법륜을 읽고 침대에서 일어날 수 있었고 파룬궁 수련을 시작한 직후 완전히 회복했다. 그녀는 심지어 직장에도 복귀해 일을 다시 시작했다. 또 다른 할머니는 병원에서 며칠 못 산다고 해 가족은 이미 그녀의 장례식을 계획했다. 파룬궁 수련을 시작한 뒤 생명이 연장되어 다시 집안일을 할 수 있어 가족 모두 신기해했다.

도덕의 경지를 말하자면 파룬궁 수련생들은 진선인(真·善·忍)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어 심성이 보편적으로 제고됐다. 일부 사람은 전에 직장에서 물건을 가져갔으나 더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과거에 가져갔던 것을 다시 가져왔다. 마을에 외래 노동자들에게





구이저우성 평탕(平塘)현 ‘장자석(藏字石)’ 자연 관광지는 국가급 지질공원으로 조성됐다. 사진은 공원 입장권이며 큰 바위에 천연으로 형성된 ‘중국공산당망(中國共產黨亡)’이라는 여섯 글자가 뚜렷이 보인다. 역년 거석이 무너지면서 ‘중국공산당망’이라는 표어가 뜬금없이 나타난 것을 우연한 일로 볼 수 있겠는가?

마음으로 파룬궁에 대한 박해를 발동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장쩌민은 파룬궁을 박해한 죄가 중하고 지옥의 징벌을 면할 수 없다는 두려움에 2001년부터 지장왕 보살에게 보우해 주기를 빌었다고 한다. 그는 바오(包) 씨 거사의 말을 믿고 집에서 지장경을 베껴 보호를 구했다.

그러나 ‘장쩌민 그 사람’이란 책에서 장씨는 두꺼비가 환생해 바른 믿음을 박해하고 세상을 어지럽히려 왔다는 비밀을 폭로했다. 사실 그것은 이미 지옥에 있으며 다만 때가 되지 않았을 뿐이다.

### 중공은 마귀, ‘삼퇴’해야 생명 지킬 수 있어

중공은 9천만 당원으로 알려져 있으나 진짜로 공산주의를 믿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으며 관료 대부분은 돈과 권력을 믿는다. 중공이 전파하는 ‘무신론’은 사람들의 바른 믿음과 도덕을 파괴한다. 중공은 정말로 마귀(魔鬼)이다. 하늘이 중공을 멸하는

것은 필연적이며 하늘이 그것을 멸할 때 그 추종자는 함께 멸망한다는 것을 수련계에서 진짜 실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다.

2002년 6월 구이저우(貴州)성 평탕(平塘)현 장푸(掌布)향에서 발견된 거대한 석벽 ‘망공석(亡共石)’에는 ‘중국공산당망(中國共產黨亡)’이라는 여섯 글자가 선명하게 남아 있다. 과학자들의 고찰에 따르면 장자석은 지금으로부터 2억 7천만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자연적으로 형성되어 인위로 조각한 흔적이 없다고 한다.

2004년 ‘9평 공산당’이라는 책이 세상에 나오면서 중공의 사악한 본질의 핵심을 세밀하게 분석했다. 지금까지 3억 9천만 명이 중공의 공산당, 공청단, 소선대 조직에서 탈퇴했다.

진상을 알고 중공 사악한 조직에서 탈퇴하는 것은 모든 중국인이 구원받는 보장이며, 자아를 되찾아 미래로 나아가게 하는, 자신에게 달린 선택이다. 福



어떤 사람은 물을 것이다. “파룬궁은 중국에서 탄압받고 있지 않은가? 프랑스 주재 중국대사관이 어찌 나서서 리홍쯔 선생을 파리로 초청해 법을 전하게 했단 말인가?” 실제로 파룬궁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바 중국공산당(중공)이 1999년 7월 파룬궁 박해를 시작하기 전, 파룬궁은 중국에서 널리 환영받았고 언론의 보도는 모두 긍정적이었다. 1992년, 파룬궁은 ‘중국 기공 과학연구회’의 직속 공파(功派)로 등록됐다.

1994년, 국무원 산하 ‘중국방송·텔레비전 출판사(中國廣播電視出版社)’는 파룬궁 주요 저서 ‘전법륜(轉法輪)’을 출판했다. 파룬궁 연공 동작 비디오는 ‘베이징 텔레비전 예술센터 출판사’에서 공식 출판·발행했다.

1992년부터 1994년 말까지 중국의 전역의 기공 과학연구회는 리홍쯔 선생을 초청해 20개 이상 도시에서 총 56회 학습반을 열었고, 6만 명 이상이 학습반에 참석했다.

당시 중국에서는 기공 보고회가 유행했는데, 기공사들은 사람들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강한 공을 내보내야 했으므로 많은 체력과 공력(功力)을 소모해야 했다. 당시 대부분 기공사는 1일 일정의 보고회에 매회 1인당 최소 50위안에서 100위안을 받았으나, 9일에서 10일 일정으로 진행된 리 대사의 학습반은 기공회 등록금, 시설대여료, 교재비 등을 충당하기 위한 최소 비용으로 매회 1인당 40위안만 받았다. 노수련생은 절반인 20위안만 받았다. 낮은 등록금 때문에 학습반 개최를 후원한 일부 지역 기공협회는 리

홍쯔 선생에게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리 대사는 시종일관 낮은 가격의 입장료를 고수했고, 매회 학습반마다 10여 일간의 힘든 여정을 마치고 나면 남은 돈이 거의 없었다.

1992년과 1993년에 열린 베이징 동방건강박람회에서 파룬궁은 탁월하고 기적적인 건강증진 효과를 보여주었다.

1998년에 베이징, 우한, 다롄, 광둥성 등 지역의 의료 전문가들은 파룬궁 효과에 대해 총 5건의 조사를 시행했다. 이것은 현재까지 진행된 가장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의료 조사였다. 약 3만 5천 명이 조사를 받았다. 조사 결과 대상자 중 98%가 파룬궁 수련 후 건강이 개선되었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심리적, 정신적 상태도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그들의 의료비용 절감은 국가와 단체에 굉장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1998년 하반기에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 차오스(喬石)를 비롯한 전인대 간부들은 파룬궁에 대한 정밀 조사를 시행해 “파룬궁은 국가와 국민에게 백 가지 이로운 점은 있어도 한 가지 해로운 점이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그해 말, 그들은 보고서를 당시 중공 총서기 장쩌민과 당 정치국에 제출했다. 파룬궁은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히 하는 뛰어난 효과로, 1992년 5월~1999년 7월 공안부 조사 데이터에 따르면 수련 인 수가 7천만에서 1억 명에 달했다. 福





## ‘마레(马列) 할머니’가 파룬궁 수련인이 되다

글/ 춘메이(春梅)

내가 일하고 생활하는 교정에는 학과와 처에서 지도자였던 여성 상사가 있다. 그녀는 사람이 매우 선량했지만 ‘당성(党性)’이 이해되지 않을 정도로 강해 다들 ‘마레(마르크스레닌주의) 할머니’라고 불렀다.

이 할머니는 나와 아는 사이였다. 그녀는 중공이 파룬궁을 박해하기 시작하자, 일찌감치 눈앞의 손해를 입지 말라고 권유하면서 “당신들은 너무 미신적이야. 당이 연마하지 말라는데 왜 맞서려고 해요?”라고 말했다. 내가 그녀에게 이유를 설명하려 하자, 그녀는 “그만 해요.”라고 말했다. 차츰 우리는 멀어졌다.

2006년 가을, 갑자기 그녀에게서 전화가 왔다. 전화에서 그녀는 울음을 터뜨리며 “제발 당신들 사부님께 저를 살려달라고 부탁해줘요, 저 죽게 됐어요!”라고 했다. 나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곧장 그 집에 갔다. 그녀는 몇 년 전에 남편이 세상을

떠났는데, 아이들과 함께 살지 않고 혼자 살았다. 그녀는 심한 통풍 병이 와서 자녀가 자기를 데리고 시 전역 큰 병원에 두루 다녔다며, 전문가들이 이 병은 완치될 수 없고

약으로 통증을 완화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너무 괴로워하며 말했다. “약을 좀 많이 먹으면 간과 신장에 해롭고, 조금만 먹자니 아파서 견딜 수 없어요. 이미 반년 넘게 잠을 못 자고 계단도 못 내려가는데, 무슨 살맛이 있겠어요?!”

내가 그녀에게 “왜 지금 파룬궁이 생각나셨어요?”라고 묻자, 그녀는 “당신들은 다 선량해요. 특히 당신은 원래 병을 달고 살았지만 지금은 병 없이 일신이 활가분해졌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파룬궁만이 저를 구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라고 말했다.

나는 그녀에게 파룬궁 박해의 진상을 알려줬다. 그녀는 중공과 장쩌민의 헌법 위배, 법을 짓밟고, ‘4·25, 1만 명 청원’ 왜곡, ‘텐안먼 분신자살’ 사기극 조작, 파룬궁 수련생에 대한 가혹한 박해를 들으면서 중간중간 “어떻게 그럴 수 있어?!”라며 경악했다.

한 시간 넘게 대화를 나누면서 그녀는 파룬궁이 무엇인지, 그리고 중공이 박해하는 진상을 거의 분명히 안 것 같았다. 그녀는 내게 “파룬궁이 내 병을 고칠 수 있을까요?”라고 간절히 물었다. 나는 “파

**당신들은 다 선량해요. 특히 당신은 원래 병을 달고 살았지만 지금은 병 없이 일신이 활가분해졌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파룬궁만이 저를 구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다. 같은 해 9월 마오는 83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시신은 방부처리를 거쳐 수정관에 입관했다. 향간에서 전하는 데 따르면 납욕으로 만들어져 끝없이 시달림을 받아야 해서 죽어서도 편안하지 않다고 한다.

전 중공 특무 두목이자 중앙상무위원인 강성(康生)은 평생 악랄한 행위를 일삼으며 벼슬자리를 지키기 위해 ‘연안정풍(延安整风)’, ‘토지개혁(土改)’, ‘문화대혁명’ 등 역대 운동에서 많은 사람을 살해했다. 그런데 초능력에 관해 철석같이 믿어 초능력을 가진 10대 소녀를 특수 공작원으로 양성해 중공 특무사업에 ‘공헌’할 것을 지시했다.

병원 간호사에 따르면 강성과 그의 아내의 죽기 전 공포증을 앓았는데 늘 사악한 귀신이 나와서 그들의 목숨을 앗아가려 하는 것을 봤다고 한다. 강성은 1975년 극도의 공포 속에서 죽었다. ‘문화대혁명’이 끝난 후 린바오(林彪), 장칭(江青) 반혁명 집단의 주범으로 지목돼 당에서 제명됐고 바바오산(八宝山)에 있던 유골함을 이장하게 했다. 사후에도 여전히 비판받았다.

### ‘대사’ 미신한 저우용강, 악보 면치 못하다

2014년 중공 정법위원회 서기 저우용강(周永康)은 부정부패라는 명목으로 사법처리를 받았으나 관료사회와 민간에서는 그가 장쩌민(江泽民)의 파룬궁(法輪功) 박해를 따르다가 악재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저우용강은 쓰촨(四川)에서 집권할 때 장쩌민을 따라 파룬궁을 박해하다가 장(江)

의 눈에 띄어 정법위 서기로 승진했다. 재임 10년 동안 그는 국가기구 전체를 조작해 파룬궁 수련생을 잔혹하게 탄압했다. 또 보시라이(薄熙來)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파룬궁 수련생 생체에서 장기를 적출하는 죄악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유명 인권변호사인 가오즈성(高智晟) 변호사는 “저우용강에게 반(反)인류 죄를 선고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저우용강은 일찍이 풍수를 매우 미신했고 누군가의 가르침을 받아 조상의 무덤을 수리했는데, 이때부터 순풍에 뜻을 올린 듯 벼슬길이 열렸다. 그는 또 특별한 초능력 ‘대사’를 매우 미신했고 자신이 순항하도록 보호해 주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재임 중 신양인을 박해한 죄악이 하늘에 사무쳐 풍수쟁이도 ‘대사’도 어찌할 수 없었다. 2009년 그의 집 조상의 무덤에 누군가 큰 구멍을 냈다. 당시 장쑤(江苏)성 공안청, 상하이공안국, 공안부가 대량의 경찰력을 동원해 이 사건을 수사하려 했으나 성과 없이 결국 대충 넘어갔다.

2015년 6월 11일 저우용강은 낙마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자고로 바른 믿음을 박해한 자는 좋은 말로가 없다’라는 말에 들어맞았다.

### 바른 믿음에 대한 박해로 죄악 극심한 장쩌민, 자아보호 방편으로 ‘지장경’을 베끼다

파룬궁 박해의 원흉인 장쩌민은 무고한 생명을 수없이 죽였는데 파룬궁 창시자의 높은 덕망과 위망에 질투를 느껴 소인배의



# 무신론을 받드는 중공 당수와 악당이 더 깊이 '미신'에 빠지다

글/ 링즈(凌志)

무신론을 전파하는 중공은 민중의 '봉건 미신'을 금지했고 집권 후 유·불·도 3교를 모두 멸했다. 그리고 1999년에는 진선인(眞善忍)을 믿는 파룬궁 수련자를 박해했다. 그러나 중공 관료사회에서 당수부터 정치국 상무위원, 정법위원회 두목에 이르기까지 점괘나 풍수를 보고 절을 찾아 향을 피우는 '미신' 바람이 성행하고 있다. 그들의 머릿속에서 공산주의 의식 형태는 단지 투쟁 철학의 교과서일 뿐이다.

## '미신'에 가장 깊이 빠진 당수와 악당들 끝이 좋지 않을 것

유명한 재미 정론가 천포쿵(陳破空)은 '기울어진 천안문'에서 전 당수 마오쩌둥(毛澤東)이 자신은 무신론자라며 '하늘과 싸우고 땅과 싸우며' '하늘도 땅도 두렵지 않다'라고 주장했으나 그는 도리어 특별히 '미신'해 평생 점대를 뽑아 길흉을 점쳤다고 언급했다. 마오는 상경하여 집정 후 고궁에 살며 제왕의 위세를 떨치고 싶었다. 그러나 베이징 서산의 한 도사(老道)가 그에게 고궁의 왕기(王氣)가 너무 강하고 그의 운명이

역대 제왕과 상극(相克)해 입궁하면 강산을 지키기 어려울 것이라고 일러줬다. 하여 마오는 도사의 말을 듣고 중남해에 입주한 후 평생 고궁에 발을 들여놓지 않았다.

마오가 자신의 집권 상황을 문자 도사는 한동안 생각에 잠겼다가 8341이라는 숫자만 말했다. 마오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었다. 다시 물으니 도사는 입을 다물고 대답하지 않았다. 다그쳐 문자 도사는 천기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래서 마오는 도사의 조언에 따라 자신의 경호부대의 번호를 '8341'로 정했다. 문화대혁명이 한창일 때 마오는 항저우(杭州) 영은사(靈隱寺)에서 "위명(威命)은 막을 수 없다."라는 점대를 뽑았다. 그리하여 폭행·파괴·약탈의 '문화대혁명'을 일으켜 중국의 수천 년 전통문화를 파괴해 죄인이 됐다.

1976년 3월, 지린(吉林)성 지린시에 운석우가 내렸다. 마오는 스스로 여생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았는데 병상에서 문득 '8341'의 의미를 깨달았다. 바로 자신의 수명은 83세이고, 쑨이(遵義)회의부터 죽을 때까지 41년 동안 권력을 잡았다는 뜻이었

룬궁은 병을 고치러 온 것이 아니지만, 우리 사부님께서는 수련자의 몸을 조정해 주실 것입니다. 진정으로 대법을 믿는 사람은 신의 가호를 받을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녀는 연공에 대해 자세히 물었는데, 그녀의 눈빛에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떠날 때, 나는 그녀에게 '파룬파 파하오(法輪大法好)'가 인쇄된 작은 카드를 선물하면서 틈틈이 '파룬파파하오(파룬파 파는 좋습니다), 찐싼런하오(真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를 염하면 몸에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사흘째 되는 날 그녀는 내게 전화를 걸어 빨리 좀 와달라고 했다. 내가 무슨 일이 생겼나 싶어 그 집에 뛰어갔더니 그녀는 문을 열면서 "정말 신기해요! 너무 신기해요!"라고 외쳤다. 흥분한 모습이었다. 그녀는 말했다. "그저께 당신이 간 뒤 밤 9시쯤 침대에 앉아 '파룬파파하오, 찐싼런하오'를 묵념했는데 묵념하다가 이불에 기대어 잠들었어요. 깨어나니 다음 날 아침 6시였는데, 반년여 만에 처음으로 잠을 푹 잔 거예요. 침대에서 내려와 보았더니 발도 다리도 아프지 않아 아래층에 내려가 장을 보러 갔어요. 아들딸들은 듣고 모두 기뻐하며 계속 읽으라고 격려했어요."라고 말했다.

그녀는 또 말했다. "어젯밤, 제가 계속 침대에 앉아서 '파룬파파하오, 찐싼런하오'를 읽고 있는데 머릿속에서 갑자기 '리 선생님의 가르침이 좋아!'라는 말이 튀어나오더니, 순간 한 줄기 뜨거운 흐름이 위로 올라가면서 저도 모르게 목이 좌

우로 몇 분간 흔들렸어요. 이어서, 이 뜨거운 흐름이 또 내려가더니 허리가 한참 좌우로 흔들렸어요. 저는 약간 흥분되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어요. 마음을 가라앉히고 보니 목과 허리가 너무 가벼워졌는데, 목등뼈 골절 증식과 과로로 허리 근육이 손상됐던 증상이 없어진 거예요! 얼마나 신기해요!"

나도 이 신기한 현상에 감동해서 "대법과 인연이 있으시네요!"라고 말했다. 그녀는 "리 선생님께서 이미 저를 책임지고 계세요! 저 파룬궁(法輪功)을 연마할래요. 제게 동작을 가르쳐 주세요!"라고 말했다. 그녀의 마음에서 진실하게 우러나온 말에, 나는 바로 그녀에게 '전법륜(轉法輪)', 교공 비디오, 연공 음악을 가져다주고, 다섯 가지 공법을 가르쳐줬다. 그녀는 파룬파파를 수련하는 길에 들어섰고 그 자녀들은 어머니의 선택을 매우 지지했다.

이제 그녀는 80대 노인이지만, 얼굴이 환하고 머리는 약간 희끗희끗하다. 그녀는 파룬파파를 알리는 살아있는 매체가 됐다. "파룬파파는 정말 좋아요!",

"공산당은 사람을 속이기만 합니다!"라는 두 마디는 그녀가 진상을 알리며 사람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다. 福





## 중공 열성 지지자였던 젊은이가 인생이 바뀌다

글/ 장원(章韻)



캐나다 토론토 유학생 리사(Lisa) 왕은 예전에 '샤오파홍(小粉红: 중공을 열성적으로 지지하는 젊은이)'이었지만, 지금은 파룬따파(法輪大法) 수련자다. 그녀는 자신의 지난 십여 년 세월에서 기다림과 우여곡절, 신기한 일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 샤오파홍의 파룬궁에 대한 편견

2004년 토론토에 유학하러 온 리사는 나중에 회사를 차렸고, 여타 사람들처럼 파룬궁 수련생에 대해 잘 몰라 편견이 있었다.

“예를 들면 파룬궁이 중난하이를 포위한 것은 정권전복이고 배후에 미국의 지지가 있으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 사람을 해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토론토에서 이들은 매일 현수막을 거는데 뭐 하는 짓이지?’ 하고 아니꼽게 봤어요. 일부 현수막에 ‘파룬궁 수련생 생체장기적출을 중단하라’라고 적었는데 10여 년간 전혀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았죠.”

리사는 10년 전에 발생한 일을 말했다. “제가 일로 중국영사관에 갔는데 길 맞은 편에 여러 파룬궁 수련생이 현수막을 들고 있었어요. 매일 그곳에 있으므로 사계절 내내 이들을 볼 수 있죠. 이들이 돈 받고 영사관 앞에서 서 있는 것이지 그게 아니라면 누구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친구들이 말했어요. 일을 보고 영사관 출구에서 우회전하다가 전단을 나눠주던 파룬궁 할머니와 만났어요. 그는 저에게 진상 전단을 건네주면서 ‘중공에 미혹되지 마세요...’라고 말했고, 저는 두 눈이 뒤집혀 하늘을 바라보며 한숨 쉬고는 ‘그냥 미혹되게 놔두세요!’라고 하면서 가버렸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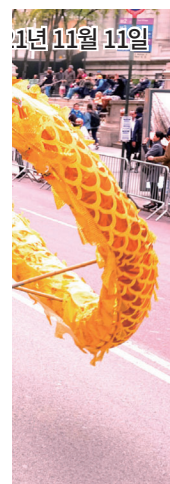
리사는 또 회고했다. “그때는 어찌 된 일인지 몰랐고 이해도 못했죠. 우리는 매우 잘살고 있지 않은가. 공산당이 없으면 출국할 기회가 있었겠나? 이런 생각이었어요.”

자신의 이런 편견은 전적으로 공산당 선전에서 비롯된 것이라면서 “저의 생활이 파

## 파룬따파 세계 홍전(弘傳)



캐나다 2021년 11월 21일



2021년 11월 11일



뉴질랜드 2022년 1월 15일

파룬따파(法輪大法-파룬궁이라고도 함)는 리홍쯔(李洪志) 선생께서 1992년 5월부터 전하신 불가의 상승(上乘) 수련대법이다. ‘진선인(真·善·忍)’을 근본 지도로, 다섯 가지의 간단하고 아름다운 공법 동작을 포함하고 있으며, 수련자의 심신을 건강히 하고 도덕을 새로이 향상시킬 수 있다. 지금까지 파룬따파는 이미 세계 6대주 100여 개 국가와 지역에 널리 퍼졌다.





세계지도에서 노란색으로 칠해진 지역이 파룬따파가 전파된 곳들이다.



대만 2021년 11월 12일



미국 2021

룬공과 관련이 없다 보니 시간을 내서 알아볼 마음도 없었어요.”라고 말했다.

리사의 파룬궁에 대한 첫인상은 2001년 ‘텐안먼 분신자살 사건’이었다. “그해 전국 TV 채널에서 온몸이 시커멓게 탄 사람이 가부좌하고 있는 모습을 연이어 방송했어요. 그 화면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어린 나이에 봤지만, 아직도 기억에 생생해요. 당시 매우 놀랐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궁금했던 것은 “사람이 불에 타도 움직이지 않고 가부좌를 유지하다니? 불에 타는 고통과 몸부림이 전혀 없을 수 있는가?” 그러나 매일같이 뉴스에서 보도하므로 그도 믿게 됐다. “사실 그때 파룬궁이 무엇인지 전혀 아는 바가 없었으며 나라에서 하는 말을 그대로 듣고 믿었어요.”

### 온라인 검색과 사실 확인 후 중공을 똑똑히 알게 되다

필경 해외이므로 리사는 다른 정보와 많이 접촉했다. 그가 말했다. “20년 넘게 현수막을 펼친 파룬궁 수련생이 있고, 또 제가 줄곧 믿어온 국가 기구의 선전이 있습니다. 누가 거짓말을 하는 것일까요? 저는 사고하기 시작했고 인터넷에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많은 자료를 찾아 읽었습니다.”

그는 친구에게 중공의 생체장기적출에 관해 자문한 적이 있었다.

“친구가 알려준 내용인데요. 그에게 광저우(廣州) 군구(军区) 군의관으로 일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자기에게 생체장기 적출 내막을 알려줬다고 했습니다. 처음부

터 상급 지도자는 군의관에게 사형수의 장기라며 이들이 죄를 지었기에 사형을 당하는 거라며 심리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했대요. 갈수록 ‘사형수’가 점점 많아져 장기 적출 승합차가 사형장 옆에 주차했으며, 이쪽에서 총살하면 저쪽에서 배를 가르고 장기를 적출했는데 아직 살아있었답니다. 군의관이 장기 적출 수술 1건에 1만 위안씩 나눠 가졌으며, 2000년경의 일입니다.”

“저는 파룬궁이 하는 말이 사실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인민이 찬양하는 공산당이 살아있는 사람의 장기를 적출해 판매하는 짓을 한다고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진선인(真·善·忍)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려는데 당이 이들을 살해해서 되겠어요? 그야말로 시비가 뒤바뀐 세상인 거죠.”

### 호기심에 ‘전법륜’을 읽기 시작하다

그녀는 말했다. “공산당의 체계적인 세뇌



국제사회는 각 분야 전문가의 치밀한 증거조사와 사실 확인을 거쳐, 세 편의 권위 있는 서적 ‘피의 수확(Bloody Harvest: 血腥的活摘器官)’, ‘국가 장기를 약탈하다(State Organs)’, ‘학살(The Slaughter)’을 차례로 출간해, 중공이 체계적으로 파룬궁 수련생을 학살하고, 살아있는 몸에서 장기를 적출해 판매했음을 상세히 증명했다.



주임으로 파룬궁에 좋은 인상이 없었지만, 업무 관계로 파룬궁 수련자와 접촉하게 됩니다. 그들은 매우 열심히 일했고 책임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접촉한 여는 사람보다 책임감이 강했고 공산당이 선전 한 것과 달랐습니다.”

“2019년에 연분으로 저는 파룬궁 수련생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참 논리적이었고 모든 말에 이치가 있었으며 친절했습니다. 몇 번 대화를 나눈 후 그가 제게 ‘전법륜(轉法輪)’을 빌려줘 호기심에 ‘전법륜’을 펼쳤습니다. 왜 1억이 넘는 사람이 매료됐을까? 책에 도대체 뭐라고 쓰여 있나 보고 싶었습니다.”

리사는 입을수록 더 보고 싶어졌다. “전법륜’에서 말한 성체, 성체에 대해 매우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저는 또 부처에게 왜 사리가 있는지를 연구한 적이 있었지만, 그 원인은 몰랐습니다. 진화론, 화학, 양자역학 등을 연구하고 있는데 ‘전법륜’의 말씀이 매우 과학적이고 논리적으로 인체와 우주의 오묘함을 해석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과학의 종점이 신학이라는 말에 감탄했습니다.”

### ‘9자진언’의 위력이 나타나다

2020년 중국에 계시는 리사의 어머니가 친척 방문을 왔다가 전염병이 만연해 귀국할 수 없었다. 어머니는 전에 수술한 부위가 부어 통증을 참기 어려웠다. 갑상선 결절 제거 수술 후 의사는 어머니에게 암으로 변할 수 있으므로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고 알려줬다.

“2021년 3월 어느 날 어머니는 갑상선이 부어올라 호흡곤란이 와서 눈물을 계속 흘리셨습니다. 이번이 두 번째로, 어머니는 질식으로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겠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부득이 저는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응급치료 갔습니다. 전염병으로 인해 환자만 들어갈 수 있었는데 어머니는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어머니는 영어를 몰라 가족도 없는 상황에서 혼자 외국 의사를 대면하려 하지 않아 어쩔 수 없어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아는 그 파룬궁 수련생이 어머니에게 ‘9자진언[파룬파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파파는 좋습니다), 찌싼런하오(真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를 외워보라고 권했습니다.”

리사는 돈도 들지 않고 손해 볼 것도 없으니 한 번 외워보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질병은 아무도 대신할 수가 없어요. 어머니 딸인 저도 어머니 대신 아파 드릴 수가 없어요. 저도 9자진언이 효과가 있는지는 몰라요. 어머니, 아픈 채로 계시든지 아니면 외워보든지 하세요. 아주 간단해요. 스스로 결정하세요.” 어머니는 그 말을 다 듣고는 묵묵히 9자진언을 외우기 시작했다.

그날 밤 어머니는 끊임없이 ‘9자진언’을 외우고 나니 숨쉬기가 어렵지 않은 것 같고, 아파서 나오던 눈물도 멈췄다고 했다. 밤에 어머니는 잠이 들 수 있었다. 이튿날 아침 리사는 다급히 어머니에게 물었다. “어떠세요?” 어머니가 말했다. “어젯밤에는 통증 없



이 잘 잤다. 꿈도 꿔.”  
“꿈, 무슨 꿈이요?” 리사는 호기심에 물었다.

어머니는 꿈에 흑색 덩어리가 몸에서 날아가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다. 리사는 눈을 크게 뜨고 놀라워 불가사의하게 여겼다. 그것이 바로 ‘전법륜’에서 말한 병업(업력) 덩어리였다. 사부님께서 어머니의 신체를 조정해주신 건가? 눈앞에서 일어난 사실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때부터 어머니는 매일 ‘9자진언’을 외웠고 잠을 잘 잘 수 있었다.

“며칠 후 어머니는 꿈에 푸른빛과 노란빛이 서로 비춘 것을 보았는데 부드럽고 따뜻한 빛이 어머니를 향해 비쳤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신앙에 대해 알아본 적이 없고 수련계의 일은 더욱 모릅니다.” 리사는 이어서 말했다. “어머니는 이런 것이 뭔지는 모르지만 매일 9자진언을 외웠습니다.”

“2주 후 저는 어머니에게 ‘전법륜’을 보라고 권했습니다. 책을 본 지 얼마 되지 않아 어머니는 소파에 기대어 잠들었습니다. 저는 제 할 일을 하러 방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어머니의 비명이 들려 얼른 뛰어가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그러세요?’ 어머니는 ‘너무 아파! 공 두 개를 삼킨 것 같아. 누군가 여기(어머니는 갑상선 부위를 만지며)를 꼬집어내 그것을 잘라버렸어! 아이고, 너무 아파!’ 나는 기빠서 어찌할 바를 몰라 어

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사부님께서 어머니 병소를 제거해주신 거예요! 어머니는 별일 없을 거예요!”

“어머니는 중국에 돌아간 후 종합검진을 받았는데 의사는 모든 것이 정상이라고 알려줬습니다. 현재 어머니는 여전히 매일 ‘9자진언’ 외우기를 견지하고 계십니다.”

### 파룬궁 수련자로 되다

리사는 말했다. “어릴 때 머릿속에 의문이 있었어요. 누가 나를 인간 세상에 보낸 걸까? 내가 원하는지 묻지도 않고 부모님은 날 인간 세상에 데리고 왔구나. 어린 나이였지만 세속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지 오래였습니다. 사람 마음은 변화가 많고 복잡하지만, 사람이 관심 두는 일은 간단합니다. 명리정(名·利·情)을 위해 평생을 헛되이 보냅니다. 이런 것에서 벗어나 수 있다면 그건 제가 추구해 온 것이겠지요?”

“어머니의 실제 체험을 보고, 제가 얼마나 행운인지 느꼈습니다! 직접 겪은 일이 아니라면 21세기 실증과학을 따지는 지금, 저는 어찌해도 믿지 않았을 거예요.” 그는 대법제자가 목숨을 잃을지언정 왜 수련을 포기하지 않는지 깊이 알게 됐다. 그들은 생명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이다.

리사는 감개에 젖어 말했다. “저는 샤오편홍에서 대법 수련에 들어섰고 과학적인 인식에서 감성적인 인식으로, 감성적인 인식에서 이성적인 인식을 했습니다. 걸음마다 쉽지 않습니다. 지금 저는 ‘감히’ 자신을 한 수련자로 부를 수 있습니다!”

